

08+09

예술과
만남

2017 AUGUST + SEPTEMBER | VOL. 127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PEACE &
PIANO^{4th}
FESTIVAL

ASIAN HARMONY



CONTENTS

Focus

- 06 **Focus Image**
〈제4회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
- 08 **Focus Column**
제4회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 애호가 모두 모여라!’
- 12 **Focus Interview**
운명으로 이끈 그의 삶,
연주에 녹아내리다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



Stage

- 18 **주목, 이 공연 I**
와, 방학이다!
엄마, 근데 우리 어디 가요?
〈방학맞이 어린이, 청소년 기획공연〉
- 20 **주목, 이 공연 II**
꿈꾸는 사람, 당신을 위한 무대가
시작됩니다.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Master Wanna be〉
- 24 **주목, 이 공연 III**
경기필하모닉, 2017 무직페스트
베를린 무대에 우뚝 서다
경기필하모닉 〈무직페스트 베를린〉
- 28 **주목, 이 공연 IV**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가 만났다!
전통연희 〈흑부리 장구〉
-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8, 9월 공연
- 32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윤이상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경기도립극단
〈윤이상; 상처입은 용〉
- 34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최상의 피아노와 최고의 연주자가
만드는 명품의 ‘품격’
〈스타인웨이 피아노 오프닝 콘서트,
임동혁 리사이틀〉

Interview

- 38 **GGAC가 만난 사람 I**
클래식을 사랑한 웹툰작가
경기필 청소년음악회 김용희
- 42 **GGAC가 만난 사람 II**
단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피아니스트 박중훈
- 46 **예술가의 방**
경기 새천년, 새 시대를 달리는
우리 음악
경기도립국악단 타악, 사물팀
함경인·박상득 수석단원
- 50 **타인의 취향**
〈話양연화〉가 함께하는 사이(間)
話양연화 마니아 관객 유시내 씨

38



Story



- 54 **예술, 수작을 걸다 I**
아이와 공연 볼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 58 **예술, 수작을 걸다 II**
신진 예술가의 꿈을 인큐베이팅
하기 위한 공공극장의 역할
- 62 **예술과 인문학**
한여름 낭만 잔치는 시작되었다
-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Talk

- 67 **예술, 더하기**
- 68 **GGAC News**
- 70 **공연 캘린더**

Editor's Letter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름철
반짝 손님 '장마'가 지나니
휴가와 방학이 이어집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달콤한 휴식처럼
소소한 삶에 흥미로움을 나르는
이 한권을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 피아노 단일악기
페스티벌로 올해 4회째 선보이는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체험전, 무르익은 여름과
초입의 가을을 반가이 맞으며
계절을 벗 삼은 공연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유쾌한 목소리까지
글로 마주하는 〈예술과 만남〉,
독자 분들의 시선이 깃들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더 살가운 매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득 실어
기꺼이 머물겠습니다.

발행인 정재훈
편집인 정재훈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편집 조명아
편집위원 신혜원
안성현
박혜은
조아라
발행처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5
팩스 031-230-3275
이메일 magazine@ggac.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매드

F

O

U

S P E C I A L
T H E M A

S

06

Focus Image

<제4회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

08

Focus Column

<제4회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 애호가 모두 모여라!

12

Focus Interview

운명으로 이끈 그의 삶, 연주에 녹아내리다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

PEACE& PIANO FESTIVAL

ASIAN HARMONY

Focus

Focus Image



소통

ASIAN HARMONY

평화

PEACE & PIANO

감동

IMPRESSION

〈제4회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 피아노 애호가 모두 모여라!

글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17세기 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크리스토포리는 셈여림을 표현할 수 있는 건반악기의 제작에 착수한다. 이후 피아노는 인류를 대표하는 악기로 자리매김했다. 바이올린, 첼로와 더불어 클래식 음악에서 손꼽히는 주역이다. 이 피아노만을 위한 음악 축제가 2011년 한국에서 탄생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주최하는 피스 앤 피아노 페스티벌(PEACE & PIANO Festival)이다. '피스'에는 '평화'라는 의미와 'Pianists Emotion & Artistry Contributes the Earth'라는 의미도 있다. 지구촌 이웃과 지역사회에 예술가들이 공헌함으로써 감동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제1회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은 2011년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 등에서 개최됐다. 오프닝 콘서트에는 한동일, 신수정, 이경숙 등 원로급 피아니스트들과 젊은 손열음이 신구의 대비를 이루며 예술감독 김대진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또 임동혁, 백혜선, 조성진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렸다. 이때 조성진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 쇼팽 발라드 1번과 4번,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연주했다. '피스 콘서트'에서는 김대진, 박종화, 박종훈 조재혁 등과 더불어 차이콥스키 음악원 출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이 게스트로 출연, 2대, 3대를 위한 피아노 연주를 펼쳤다. 수원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피날레 파크 콘서트에서는 김대진, 김영호, 이경숙의 피아노에 김대진이 지휘하는 수원시향이 모차르트 협주곡 23번,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 그리그 협주곡을 각각 연주했다. 이밖에도 일반인을 위한 오픈클래스와 전공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또 클래식 입문자를 위해 베를린 필 송년음악회, 루체른 페스티벌 등의 영상을 상영한 '피아노 온 스크린' 등 교육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페스티벌의 수익금은 월드비전과 연계해 콩고 지역의 우물 파기 프로젝트에 기부하며 '피스'라는 명칭에 방점을 찍었다.

〈제2회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은 2013년 8월 17일부터 24일 사이에 열렸다. 오프닝 콘서트에서 김태형, 조성진이 김대진 지휘 경기필과 협연하고, 임동혁, 임동민이 각각 리사이

틀을 열었다. 윤홍천, 김규연, 김준희 등도 협주곡 무대에 섰다. 피아노 교육계의 거목 정진우 교수와 제자들이 펼친 오마주 콘서트와 박종훈이 국악, 타악, 현대무용과 접목한 콜라보레이션 무대, 피아니스트들이 손가락 못지않은 입담을 펼친 '토크 투 피아노' 등이 개최됐다. 2012년 라이징스타 발굴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유성호, 김강태, 박민혁, 선율, 김채원 등 10대 피아니스트들이 신수정, 이경숙, 그리고 김태형, 김진욱 등 원로와 선배 피아니스트들의 조언을 받는 마스터클래스도 마련했다. 2회 축제 때는 '착한 피아노'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됐다. 피아노를 기증받아 미술작가들이 아름답고 개성 있게 꾸민 피아노를 수원 시내 주요 지점에 배치하고 누구나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었다. 페스티벌 종료 후에는 문화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됐다. 축제는 진화했다. 2015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3회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은 글로벌한 성격이 강화됐다. 바로 전해인 2014년 리스트 콩쿠르 우승자인 조지아의 마리암 바차슈빌리와 2014년 루빈스타인 콩쿠르 우승자인 우크라이나의 안토니 바리셰프스키를 초청, 위너즈 리사이틀을 열었다. 여성적이면서 초월적이었던 바차슈빌리, 그리고 묵직한 중저음과 제어력이 돋보인 바리셰프스키. 동시대에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직접 보면서 클래식 음악계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프닝 콘서트에서는 한지호, 이진상, 김정원이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3번,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랩소디,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각각 협연했다. 보르코프스키가 지휘하는 경기필이 반주를 맡았다. 피날레 콘서트에서는 2017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인 선우예권이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손민수가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조슈아 한이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각각 협연했다. 박종훈, 박진우, 이윤수, 한상일, 최수진 등이 현대무용과 콜라보레이션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올여름의 끝자락, 2년마다 열리는 건반의 축제가 또 한 번 예정돼 있다. 〈제4회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이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아시안 하모니(Asian Harmony)'다. 유럽 중심의 피아노계에서 당당히 존재감을 빛내고 있는 아시아의 피아니스트들이 협연이나 리사이틀,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개막일인 25일, 페스티벌의 첫 테이프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끊는다. 리스트의 '시적이고 종교적인 선율', 제7번 '장송곡'을 비롯해 브람스의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소품', 쇼팽의 '베틀노래', 슈만의 '빈 사육제의 어릿광대'를 연주한다. 빈에 거주했던 김정원의 남다른 감성이 묻어나는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28일 박종훈과 치하루 아이자와 부부가 콜라보레이션 스테이지를 펼친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색다른 쇼팽(A Different Chopin)'이다. 29일에는 1988년생 중국의 여성 피아니스트 장 주오가 리사이틀 무대를 연다. '지지(Zee Zee)'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그녀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공부했고, 지나 바카우어, 퀸 엘리자베스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2015-16년 시즌 BBC 올해의 영 아티스트로 동 세대 피아니스트 중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장 주오는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 첼리스트 나레크 하크나자리안과 함께 도이치그라모폰에서 음반을 발매할 예정이다. 유자 왕 이후 또 다른 중국 피아니스트를 발견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31일 '아시안 하모니'는 한중일 피아니스트들이 음악 안에서 어우러진다. 26세 동갑내기 피아니스트 한지호, 레이첼 쉑(중국), 카나 오카다(일본)이 따로, 또 같이 연주하는 무대다. 특히 드보르자크의 네 손을 위한 작품과 라흐마니노프, 그레인저의 여섯 손을 위한 작품 등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악으로, 극동아시아 국가 간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

9월 1일 신미정과 박상욱, 이른바 '듀오 신박(ShinPark)'이 펼치는 '듀오 하모니'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무대다. 듀오신박은 2015년 독일 ARD뮌헨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거뒀고, 2016년 모나코 국제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는 등 국제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드라마 '밀회'를 통해 알려진 슈베르트 네 손을 위한 환상곡 D940과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타네예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프렐류드와 푸가 Op.29, 쇼스타코비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티노 Op.94, 폴랑크 네 손을 위한 소나타 FP8, 라벨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라 발스' 등으로 그동안 다져진 금빛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 피날레의 주인공은 베트남의 당 타이 손(Dang Thai Son)이다. 1980년 아시아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는 지난 6월 내한 리사이틀에서 절품이라 불릴 만한 연주를 펼쳤다. 이번에도 자신의 장기인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과 라벨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김대진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이 함께한다.

피아노를 좋아한다면, 아니 음악에 공감하는 열린 마음을 지녔다면, <피스 & 피아노 페스티벌>을 주목해볼 만하다. 무더운 늦여름, 냉방 잘 되는 홀에서 명징하게 울리는 피아노의 음색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가슴 속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오프닝 리사이틀

일시 8월 25일(금)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김정원
가격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콜라보레이션 스테이지

일시 8월 28일(월)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박종훈, 치하루 아이자와,
야로스와프 돔잘 등
가격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장 주오 리사이틀

일시 8월 29일(화)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출연 장 주오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아시안 하모니

일시 8월 31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한지호, 레이첼 쉑, 카나 오카다
가격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당 타이 손

듀오 하모니

일시 9월 1일(금)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출연 신박듀오(신미정, 박상욱)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피날레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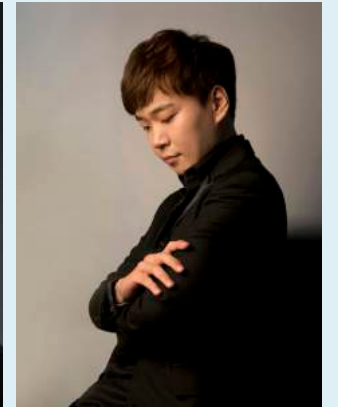
일시 9월 3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지휘 김대진, 협연 당 타이 손,
연주 경기필하모닉
가격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박종훈, 치하루 아이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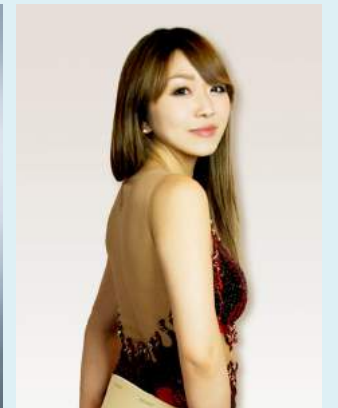
장 주오



한지호



레이첼 쉑



카나 오카다



박상욱, 신미정



김정원

운명으로 이끈 그의 삶, 연주에 녹아내리다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제4회 PEACE&PIANO FESTIVAL>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유수의 출연진 중 눈에 띄는 피아니스트가 있다.

바로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한 '당 타이 손' Dang Thai Son이다.

쇼팽과 그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

어쩌면 그의 삶은 쇼팽과 함께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연주일정으로 일본에 가던 당 타이 손이 인천공항을 경유하게 됐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를 만나 피아노와 쇼팽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삶의 각박함, 예술 표현에 밀거름

1980년 동양인 최초로 쇼팽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 그 이후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전 세계 음악계에 굼직한 이력을 남기고 있는 '당 타이 손'.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와 시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피아노를 놓지 않았다. 피아니스트인 어머니가 쇼팽을 좋아한 덕분에 접할 기회가 많았는지도 모른다.

피아노가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버팔로 등에 파아노를 싣고 산으로 옮겨 연습할 만큼 열정이 남달랐다. 하루에 피아노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20분. 전쟁터에서 피아노 소리를 내면 발각될까 두려워 미군 전투기가 지나갈 때는 피아노 소리를 멈추기 일쑤였다. 그래서일까. 전투기소리를 듣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옛 추억을 회상했다.

산속에 덩그러니 놓인 피아노 앞에서 그는 테크닉뿐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도 자연스레 익혔다. 삶의 각박함이 그의 예술을 표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19살에 러시아에 건너가 피아노를 다시 배우게 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아픔과 고통, 그 속에서 찾았던 기쁨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어쩌면 피아노는 휴식이자 안식처였다.

쇼팽과 묘하게 닮은 남다른 애정

그는 쇼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쇼팽은 폴란드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지만 때에 따라 여정을 떠나 예술가들과의 수많은 만남을 가졌다. 베트남을 떠나 러시아, 일본, 캐나다로 이동했던 그와 묘하게 닮아있다.

이번 <제4회 PEACE&PIANO FESTIVAL>에서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쇼팽의 로맨틱과 순수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곡이다. '라벨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또한 피아니스트에게 어려운 곡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곡으로 손꼽힌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폴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건반의 위아래를 넓은 아르페지오로 넘나들며 부드러운 선율을 뽑아내지만 오케스트라와 균형 맞추는 게 관건일 정도로 피아니스트에게 쉽지 않다. 그를 고대하고 있는 관객들이 적지 않다. 무대의 그를 만나게 된다면 강렬함에 빠져든다. 이런 관객들 덕에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그의 감회도 남다르다.

"30년 전에 한국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죠. 그 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빠른 성장이 인상적입니다. 무엇보다 관객들의

음악 이해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임동혁, 임동민, 조성진과 같은 피아니스트들도 돋보입니다. 특히, 제자였던 조성진의 경우 2010년 콩쿠르에서 열정을 갖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기계는 아니기에 모든 감정을 쏟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실한 연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대진 지휘자와 음악적 행복 교감

이번 공연이 기대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김대진 지휘자가 선봉에서 진두지휘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클래식 음악발전에 공헌한 김대진과 그는 인연이 깊다. 김대진 지휘자와 공연할 때마다 음악적 행복을 교감했기에 이번 공연도 기꺼이 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 붙어 이 축제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선뜻 승낙했다.

"이번 축제를 좀 더 잘 즐기고 싶다면 루빈스타인 쇼팽 연주곡 F minor와 라벨 디미트리 바쉬키로프 버전을 미리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온다면 보다 깊이 있게 곡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피아노를 치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그의 추억들이 콘서트홀을 가득 메울 듯싶다.



S

T



O N T H E
V I E W

18

주목, 이 공연 I

경기도문화의전당
<방학맞이 어린이, 청소년 기획프로그램>

주목, 이 공연 II

꿈꾸는 사람, 당신을 위한 무대가 시작됩니다.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Master Wanna be>

주목, 이 공연 III

경기필하모닉,
2017 무직페스트 베를린 무대에 우뚝 서다
경기필하모닉 <무직페스트 베를린>

주목, 이 공연 IV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가 만났다!
전통연희 <흑부리 장구>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8, 9월 공연**

A

G

E

32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윤이상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경기도립극단 <윤이상, 상처입은 용>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최상의 피아노와 최고의 연주자가
만드는 명품의 '품격'
<스타인웨이 피아노 오프닝 콘서트,
임동혁 리사이틀>

P R E V I E W

와, 방학이다! 엄마, 근데 우리 어디 가요?

경기도문화의전당 <방학맞이 어린이, 청소년 기획공연>

드디어 시작된 여름방학. 기대에 가득 찬 자녀들의 눈망울에 맞추해주고픈 부모님들을 위해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한 아름 준비했다.
어린이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고려한 맞춤형 공연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니,
문화와 예술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고 싶은 사람, 모두 모여라!



얼렁뚱땅 색깔공장



꾸러기 공룡 코리요

내 맘대로 아무 데나 낙서하고 색칠할래!

7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24개월 이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 전시전 <얼렁뚱땅 색깔공장>이 열린다. 방바닥, 벽지, 창문에 낙서하다가 등짝 스매싱 당한 경험이 있는 꼬마 친구들에게는 이곳이 다른 아닌 천국. 크레파스 빵아서 나만의 색깔 만들기, 아빠 차만큼 커다란 자동차에 마음껏 낙서하기 등 이곳에서는 모든 게 자유롭고,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뮤지컬, 비보이, 마술쇼, 페이스 페인팅, 클레이 애니메이션...
이걸 다 즐길 수 있다고요?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2017 Summer Kids Festival>이 8월 15일 하루 내내 진행된다. 어린이 뮤지컬 '꾸러기 공룡 코리요', 비보이&비트박스, 마술쇼, 인터랙티브 게임과 크로마키 체험, 클레이 애니메이션, 맥간공예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여기에 공룡과 미러맨이 함께하는 포토 행사와 키다리 아저씨 이벤트까지 더해지면 즐기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듯!

웹툰 덕후들을 공연장으로 초대합니다

웹툰이 스마트폰 안에만 있다고? 천만의 말씀. 교실에서 선생님 몰래, 지하철에서 어깨 잔뜩 움츠린 채로 조그만 화면에 집중하던 웹툰 마니아들의 귀가 솔깃할 만한 소식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웹툰 화면으로 대공연장 화면이 가득 메워지기 때문. 또, 웹툰 작가가 나와 함께 공연을 보며 그 자리에서 직접 드로잉한 작품을 감상하는 행운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공연, 경기필의 <들리는 웹툰 보이는 클래식>을 기대해보자! 공연에는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의 웹툰작가 김용희가 함께한다.

속 시원~한 사물놀이와 타악기 소리에 몸을 맡기고 싶다면!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무겁다면, 경기도립국악단의 <SOUL : 영혼을 흔드는 소리와 울림> 콘서트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나무, 가죽, 금속 등 다양한 재료와 소재를 가진 타악기 연주와, 목도령 설화를 모티브로 한 서사를 바탕으로 음향과 소리를 시각화한 영상, 인체 감지기술까지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신기한 무대가 펼쳐진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기획된 공연인 만큼 마음 놓고 신나게 즐겨보길!

교향악 축제는 어른들만 즐기나요? 아니죠!

클래식은 따분한 어른들만 즐기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 진지하게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전국 각지에 있다는 사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으로 이들을 한곳에 모아 축제를 연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20팀이 보여주는 참신한 하모니와 재능 있는 예비 음악도들의 실력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

PREVIEW

꿈꾸는 사람, 당신을 위한 무대가 시작됩니다.

[아티스트(artist); ①예술가 ②명인,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그러한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아티스트.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책으로, 영상으로, 혹은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며 감상한다.

그러나 아티스트, 그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기 위해 간절한 꿈을 꾸는 누군가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문화예술기관으로 공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그들과 동행하며 꿈의 실현을 응원한다.

또, 그 감동의 과정을 관객들에게도 숨김없이 공개한다는데... 꿈꾸는 사람, 그들을 만나러 가보자.



김지영 | 피아노



김강태 | 피아노



김영지 | 바이올린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이 여전히 뜨겁다. 가수 지망생들이 보여주는 재능과 한 멋진 무대는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시청자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자들을 향한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는다. 끝내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이 선정되는 순간,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까지 함께 눈물을 흘린다.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발씩 다가가는 서툰 모습은 여전히 사랑받는 콘텐츠다. 이는 누구에게나 꿈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도 핫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선발하여 그들이 프로로서 무대에 서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 가득 담긴 감동의 무대를 8월과 9월,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첫 무대는 <2017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이다. 이들은 8월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콘서트를 연다. 2015년부터 시작된 '경기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은 역량 있는 클래식 연주자들을 매년 발굴하여 그들의 콩쿠르 준비를 돕는 것은 물론, 거장들과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무대 매너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최상의 연주단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까지 열어주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이들의 무대는 전석 무료로 공개되며, '찾아가는 콘서트'로 경기도 전역을 방문한다.

2017 경기영아티스트에 김영지(바이올린), 김지영(피아노), 김강태(피아노)가 선발된 가운데, 김영지 양은 "아직 학생인 저에게 독주회의 협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정말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경기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연주자로서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국제 콩쿠르 무대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이 기회를 얻었으니, 잘 준비하여 최선의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대감과 포부를 드러냈다.

2017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일시 8월 16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출연 정우찬(2016 경기영아티스트)

가격 전석 무료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 <2017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Master Wanna be - 명인을 꿈꾸다**일시** 9월 23일(토) 오후 5시**장소**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출연** 지휘 조광석, 연주 경기도립국악단**협연** 윤혜미(가야금), 공영은(거문고)

강현지(해금), 한창희(대금)

조병주(소금), 사나래(민요) -

임지현, 이하나, 정은주, 계민영

가격 전석 2만원 청소년(만 24세까지) 만원**관람연령** 만 7세 이상**문의** 031-289-6471~4

이뿐 아니다. 9월에는 국악장르 영아티스트들도 야심 찬 무대를 올린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 6월 모집공고를 통해 국악의 명인을 꿈꾸는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했다. 윤혜미(가야금), 공영은(거문고), 강현지(해금), 한창희(대금), 조병주(소금), 계민영(성악), 이하나(성악), 임지현(성악), 정은주(성악) 등 총 9명의 젊은 명인들은 9월 23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Master Wanna be>라는 타이틀로 무대를 꾸민다. 그간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다져진 실력으로, 경기도립국악단과의 협연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기회가 절실했던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꿈을 멋지게 선보이는 그 꿈의 무대. 응원과 기대감으로 맞이해 보자.



공영은 | 거문고



조병주 | 소금



한창희 | 대금



사나래 | 민요팀



강현지 | 해금



윤혜미 | 가야금



PREVIEW

경기필하모닉, 2017 무직페스트 베를린 무대에 우뚝 서다

경기필하모닉 <무직페스트 베를린>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에게만 허락되었던 <무직페스트 베를린(Musikfest Berlin)>.
그런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17 무직페스트 베를린>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을 받았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다름 아닌 윤이상.
윤이상이 작곡의 혼을 불살랐던 독일에서, 경기필이 들려줄 음악이 벌써 궁금하다.

Musikfest berlin



2005년부터 시작된 <무직페스트 베를린>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실내악 앙상블 등이 참여하는 음악축제로, 전 세계 클래식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페스티벌이다. 베를린 페스트슈필레(Berliner Festspiele)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다니엘 바렌보임, 쿠르트 마주어, 로린 마젤, 마리스 안손스, 샤를 위투아 등 세계적인 지휘자 초청은 물론,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등 세계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이 참여해왔다.

<2017 무직페스트 베를린>이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베를린 필하모닉홀과 콘체르트 하우스 등에서 19일간 진행

되는 가운데, 경기필은 작곡가 윤이상의 탄생일인 9월 17일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그의 교향악 작품들을 연주한다. 더욱이 성시연의 경기필은 아시아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무직페스트 베를린>에 초청받은 것이어서 이 무대가 더욱 의미 있다.

경기필은 윤이상의 ‘예악’과 ‘무악’, 호소카와의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탄식’ 등을 무대에 올린다. ‘예악’은 윤이상의 출세작으로 마치 우리의 전통궁중음악과도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곡에서는 우리 전통음악의 주요 악기인 ‘박’이 곡의 시작을 알리면서도, 곡의 형식을 나누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무악’ 역시 매우 한국적이다. 윤이상은 우리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전승돼왔던 춘앵전(임금의 생일잔치 연에서 추던 꾀꼬리 춤)을 연상하며 이 곡을 썼다. 그는 꾀꼬리춤을 추는 무용수와 이를 둘러싼 유럽궁경꾼의 모습을 이 곡에 담았다.

윤이상의 제자였던 호소카와의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탄식’ 연주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서예리가 협연한다. 마치 부자지간처럼 윤이상과 각별했던 호소카와는 윤이상의 죽음 이후 그를 기리며 ‘메모리’를 작곡하기도 했다. 서양의 악기로 한국 음악의 소리를 추구하며 서양 음악계에 오묘한 충격을 주었던 윤이상. 그를 추억하며 세계인들 앞에서 훈신의 연주를 보여줄 경기필의 무대가 기대된다.

2017 무직페스트 베를린

일시 9월 17일(일) 오전 11시
장소 베를린콘체르트하우스 대극장
출연 경기필하모닉
가격 €10-37
문의 031-230-3440~2



P R E V I E W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가 만났다!

전통연희 <흑부리 장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가 만났다!
신나는 장구 연주와 노래, 놀이가 함께하는 전통연희
<흑부리 장구>가 아이들을 국악의 세계로 초대한다.



도깨비 하면 뿔과 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 사실, 도깨비는 전래동화에서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존재다. 원래 세종대왕 때 발간된 '석보상절'에 등장하는 단어 '돛가비'는 '능력 있는 남자'를 뜻하는 말이었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도깨비' 덕분에 도깨비는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전통연희극 <흑부리 장구>는 여기에 흥이 넘치는 도깨비의 이미지에 주목한다. 흑부리 영감의 기존 이야기를 변용하여, 흑 떼러 갔다가 호기심 많은 꼬마 도깨비가 장구 명인 흑부리 영감에게 장구를 배우며 겪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국악당의 공연 <흑부리 장구>는 친숙한 전래동화 '흑부리영감'에 전통예술을 접목한 전통연희다. 기존 '흑부리영감설화'에서 흑부리 영감이 자기의 흑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하여 흑을 떼고 부자가 되었다는 기본 모티프는 차용한다. 거기에 다른 도깨비 설화를 가져와 기존 이야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물놀이를 접목한 색다른 국악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흑부리 장구>는 신명 나는 연주와 실감 나는 연

기로 우리 장단과 국악기를 잘 모르는 아이들도 공연을 재미있게 즐기도록 구성하였다.

<흑부리 장구> 공연의 주인공은 어린이들이다. 특별히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어린이들을 무대로 등장시킨다. 공연 이후에는 포토존에서 배우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 역시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 관객들은 <흑부리 장구> 공연을 관람하며 국악의 세계에 흠뻑 매료될 준비만 마치면 된다.

흑 떼러 갔다가 흑 붙이고 돌아온다면 억울하겠지만, 상상 속 존재인 도깨비는 물론, 국악과 친해질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될 것이다. 사물놀이의 흥겨운 리듬에 어깨를 들썩이고 싶은 이들은 모두 <흑부리 장구> 공연장으로 모이자!

전통연희 흑부리 장구

일시 8월 23일(수)~12월 6일(수)

(10월 4일 휴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국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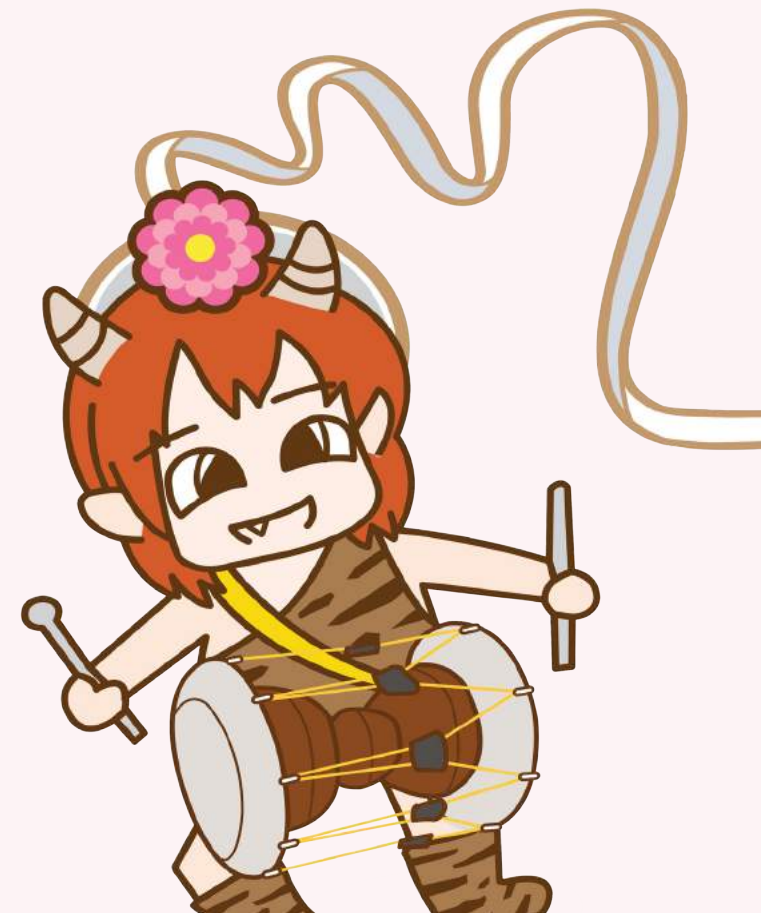
출연 연희컴퍼니유희

가격 아동 2만원, 성인 1만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문의 경기도국악당 031-289-6421

인터파크 1544-2344





경기필하모닉 청소년음악회

들리는 웹툰 보이는 클래식

일시 8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1만원

출연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웹툰작가 김용희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클래식을 들으면서 웹툰을 본다면? 경기필하모닉이 색다른 청소년음악회 <들리는 웹툰 보이는 클래식>을 선보인다. 다음웹툰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로 유명한 김용희 작가와 함께 드로잉 쇼, 음악으로 보는 웹툰 등 음악과 결합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경기도립국악단 청소년음악회

SOUL : 영혼을 흔드는 소리와 울림

일시 8월 13일(일) 오후 3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일반 2만원,
청소년(만 24세 이하) 1만원

출연 경기도립국악단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경기도립국악단이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다. 과학과 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이목을 끈다. 목도령설화를 모티브로 한 스토리와 영상, 인체감지기술과 타악연주의 참신한 만남이 펼쳐진다.



청소년 기획공연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

일시 9월 2일(토)~9. 9일(토)

장소 군포문화예술회관, 구리아트홀,
김포아트홀, 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전석 무료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이 8일간 펼쳐진다.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음악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교향악축제,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응원하는 이번 축제는 군포, 구리, 김포, 의정부, 수원에서 진행된다.



경기도립국악단 어린이 뮤지컬

국악아동뮤지컬 - 곰돌이의 여행

일시 9월 6일(수)~8일(금) 오전 11시
9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2만원, S석 1만원

출연 지휘 조광석 연주 경기도립국악단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경기도립국악단의 국악아동뮤지컬 <곰돌이의 여행> 시즌3가 찾아온다. '미하엘 엔데'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생생한 국악연주의 만남. 곰인형이 친구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 중에 일어나는 해프닝을 민요선율에 맞춰 함께 배우며 관람할 수 있다.



어린이 페스티벌

2017 Summer Kids Festival

일시 8월 15일(화) 오전10시~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썬큰무대, 광장

가격 전석 무료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다채로운 이벤트와 문화 체험 행사가 어우러진 가족 축제가 열린다. 어린이 뮤지컬 <꾸러기 공룡 코리요>와 마술쇼, 비보이&비트박스, 인터랙티브 게임, 크로마키 체험, 클레이 애니메이션, 맥간공예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기다린다.



페스티벌

2017 PEACE & PIANO FESTIVAL

일시 8월 25일(금)~9월 3일(일)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소극장

가격 VIP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출연 당타이슨, 김정원, 장주오, 한지호,
레이첼 쉐, 카나 오카다, 박종훈,
치하루 아이자와, 신박두오(신미정 &
박상욱),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내 유일, 피아노 단일악기 축제인 <PEACE & PIANO FESTIVAL>이 제4회를 맞이한다. 올해의 주제는 '아시안 하모니'. 아시안 피아니스트들의 다채로운 협연과 리사이틀이 기대된다.



브런치 콘서트 with 김중진

가을 그리고 김중서

일시 9월 14일(목)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티켓 전석 2만 5천원

출연 김중진, 김중서

브런치 공연 전/후 샌드위치와 커피 제공

'브런치 콘서트' 시즌2 가을 공연이 관객을 찾는다. 대극장 무대에서 펼쳐지는 가을의 '락' 콘서트는 김중서와 함께 한다. 김중서의 대표곡들은 물론 스텔링 챔버의 연주곡을 통해 관객과 소통할 예정. 봄여름가을겨울의 리더 김중진의 진행과 김중서의 플라보레이션이 기대해도 좋다.



특별기획

DMZ 2.0 예술과 대화

일시 9월 21일(목)~23일(토)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일대

가격 전석 무료

관람연령 전체 연령 관람가

멈춰버린 분단의 상징 DMZ의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포럼과 공연의 창조적 연결성을 통해 DMZ를 Dream Making Zone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DMZ 2.0 예술과 대화>. 그간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비롯하여 데니스 홍, 진중권, 폴포츠, 국카스텐 등이 출연해왔다. 2017년 <DMZ 2.0 예술과 대화>는 좀 더 일상에 가깝고 편안한 콘텐츠로 다가가고자 한다.



2017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예악과 무악 동서양이 음악으로 교감하다

일시 8월 26일(토) 오후 3시

장소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가격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출연 지휘 성시연, 연주 경기필하모닉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경기필이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공연한다. 경기필은 윤이상의 교향인 통영에서 윤이상의 교향악 작품인 <예악>, <무악> 등을 연주하며 윤이상의 삶과 음악을 조명한다.



문화가 있는 날

한여름 밤의 Fantasy

일시 8월 30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출연 박동하, 임상훈, 임덕수,
신명근, 엄주빈, 홍금단

가격 R석 1만 5천원, S석 1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8월 문화가 있는 날은 4인 4색의 프로젝트 남성그룹 Geneda와 함께한다. <라라랜드>의 OST 등 친숙한 곡부터 보사노바, 재즈 스윙 리듬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들의 매력과 함께 무더위는 잠시 잊을 수 있을 듯.



경기도립국악단

Master Wanna be - 명인을 꿈꾸다

일시 9월 23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가격 전석2만원 청소년 만원 (만24세까지)

출연 지휘 조광석, 연주 경기도립국악단

협연 2017 Master Wanna be 선발자들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2017년 Master Wanna be에 선발된 국악 유망주들이 야심찬 무대를 준비했다. 전통 산조부터 민요에 화음을 넣어 아카펠라형식으로 선보이는 아리랑 환상곡까지. 국악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BOOK & TALK CONCERT

話양연화 시즌 2 - 가을의 오해

일시 9월 28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3만 3천원, S석 2만 2천원

출연 이동진, 김중혁, 9와 숫자들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진행으로 책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북콘서트 <話양연화 시즌 2>가 가을을 맞아 새로운 옷을 입고 관객들을 찾아온다. 「나는 농담이다」의 김중혁, 모던 락 밴드 '9와 숫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오해'. 이들이 들려줄 가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공연장으로.



REVIEW

윤이상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경기도립극단 <윤이상; 상처입은 용>

“누가 내 얘기를 궁금해나 할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이면서

이념 논란 속에 결국 고국에 묻히지 못한, 윤이상이 묻는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분단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이 75분 동안 펼쳐진 후 막이 내리기 전,

윤이상은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을 던진다. 관객은 눈시울을 붉히고 먹먹해진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의 작품을 연주하는 커튼콜이 마치 그 비운의 예술가인 양 박수치며 답한다.

이제 윤이상이, 한 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그 시간이,

마지막까지 예술가이기를 고집했던 그의 작품이 궁금해졌다고.

글 류설아 경기일보 문화부 차장

경기도립극단이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프로젝트 2 - 한국 근현대사 인물시리즈'로 창작극 <윤이상; 상처입은 용>을 초연했다. 주인공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이다.

'동양의 사상과 음악기법을 서양 음악어법과 결합하여 완벽하게 표현한 최초의 작곡가'라는 평을 받은 그는 “왜 지금 태어나~가!”라는 작품 속 한 인물의 절규처럼 시대의 이념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윤이상은 북한에 있는 강서고분의 <사신도>를 보려고 방북, 이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기소되는 '동백림 사건'을 겪고 평생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비운의 예술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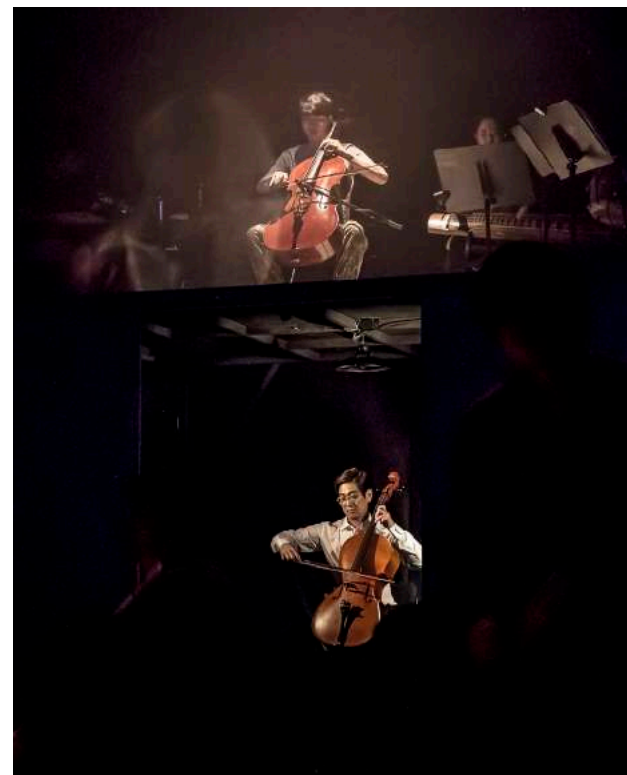
작품은 일본, 독일, 그의 고향 경남 통영까지 윤이상의 궤적을 쫓으며 그의 일대기를 다뤘다. 탄생 100주년이지만 여전히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윤이상을 무대 위로 호출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터.

하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 총연출을 맡은 양정웅 예술감독, 이대웅 연출가, 이오진 작가 등 연극계 '핫한' 삼인방이 의기투합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들은 윤이상을 본질적으로 '참혹한 시기를 관통하며 고뇌했던 한 인간이자 순수하고자 열망했던 예술가'로 그리면서 논란은 잠재우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한 극을 내놓았다.

초연작이라는 점에서 좀 더 후하게 평가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많았고 맛깔스러웠다. 무대는 미니멀하면서도 감각적이었다. 크게 가로 3개면, 세로 2개 면으로 구분한 백색 무대는 문의 개폐와 조명, 등장인물 간 대사 등에 따라 심해부터 고문실, 남한부터 독일까지 시시각각 새로운 공간으로 변했다. 라이브 연주는 작품의 품격을 한껏 높였다. 특히 윤이상의 또 다른 자아를 대변하는 첼로 연주는 악기를 잡은 배우의 뒷모습과 어우러지면서 말 이상의 내려티브를 전했다.

무엇보다 기존에 '다른 무대 같은 모습'으로 신선함을 찾기 어려웠던 도립극단 단원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공연으로 유의미하다. 작품에는 음악을 처음 만난 6세의 윤이상부터 10대부터 50대까지의 윤이상이 등장, 각기 다른 세대의 윤이상을 연기한 배우들이 한 자리에 서는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그들은 '예술가 윤이상' 하나였다.

작품 초연에 때맞춰 김정숙 여사가 독일 베를린 가토 공원에 있는 윤이상 묘소를 헌직 대통령 가족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참배하고, 통영에서 공수한 동백나무를 심었다. 여러모로 새롭게 재조명 받고 있는 윤이상을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윤이상; 상처입은 용>이 전국을 누빌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최상의 피아노와 최고의 연주자가 만드는 명품의 ‘품격’

<스타인웨이 피아노 오프닝 콘서트, 임동혁 리사이틀>

글 김희영 월간 <뮤직리뷰> 기자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연주자에게는 최상의 환경을, 청중에게는 더욱 큰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올해 초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마련했다. 지난 6월 25일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에서 그가 선보인 무대는 최상의 악기와 최고의 연주자가 뿜는 에너지가 가진 품격이 화합으로 완성된 순간이었다.

이번 무대는 쇼팽의 피아니즘으로 꾸며진 코스요리처럼 풍성했다. 애피타이저인 녹턴부터 메인요리인 프렐류드까지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였다. 첫 곡은 녹턴 op.27의 2번이었다. 그의 녹턴은 마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녹턴은 피아노의 시인다운 쇼팽의 서정성을 보여주며 긴 여운을 남겼다. 뒤이어 쇼팽의 화려한 변주곡은 왼손의 유려한 사운드와 루바토, 적절한 프레이징 처리를 통해 짹 짹 채운 화성으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 바레이션답게 각 변주마다 주제가 돋보이도록 연주한 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1부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단연 발라드일 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발라드는 지금처럼 농도가 짙은 발라드는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발라드 1번은 '화려함'과 '격렬함'보다는 '섬세함', '부드러움'에 더욱 초점을 맞춘 연주자들이 많았고, 임동혁도 그중 한 명이다. 이전 곡이 준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시작된 발라드 1번의 강렬한 도입부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역설적으로 다가왔다. 조심스럽지만 에너지 가득한 C음의 타건이었다. 곡이 클라이맥스로 향할수록, 필자를 포함한 청중들이 느끼는 전율도 한층 고조되었다. 임동혁의 무대를 자주 찾는 팬들이 왜 매년 그의 레퍼토리 중 발라드 1번을 끝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번 리사이틀의 꽃은 쇼팽의 '프렐류드'였다. 프렐류드는 각자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진 비즈들이 촘촘히 매달려있는 드레스처럼 고풍적이고 기품이 넘친다. 다만, 밀도 높은 집중과 체력을 요하기에 한자리에서 24곡의 작품을 연이어 선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쇼팽의 에튀드를 연주하는 것보다 까다롭다. No.4는 쇼팽의 장례식에서 오르간으로 연주된 만큼 그 음이 가진 하나하나의 감정을 천천히 눌러 담았고, 아라베스크 풍의 엇갈리는 리듬이 매력적인 No.5로 넘어갈 때 빠른 감정의 변화로 작품이 가진 느낌을 유려하게 해석했다. 무엇보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빗방울전주곡을 통해 그가 얼마나 성숙한 고민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빗방울전주곡은 비 오는 날 쇼팽이 상드를 걱정하며 기다렸던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었다. 임동혁의 뛰어난 테크닉을 확인할 수 있었던 No.16은 1분 남짓의 짧은 곡이지만, 절제된 감정과 비탈길을 긴박하게 올라가는 긴장감으로 임동혁의 테크닉과 완성도 높은 피아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주에서 그는 우나코다페달 사용이 잦았다. '발'이 아닌 '귀'로 밝으며 흐느꼈던 임동혁은 섬세한 전향을 고스란히 전해주며 24개의 다채롭고 빛나는 프렐류드를 선사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기획과 연주자의 마음이 일치했던 이번 슈퍼 피아노 시리즈1은 쇼팽스페셜 리스트인 임동혁답게 쇼팽의 철학과 매력을 한층 상기시켜준 성공적인 무대였다. 피아니스트 임동혁.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IN

A R T &
P E O P L E

INTERVIEW



38

GGAC가 만난 사람 I
클래식을 사랑한
웹툰작가 김용희

GGAC가 만난 사람 II
단 하나의 수식어로 표현할 수 없는
피아니스트 박중훈

46

예술가의 방
경기 새천년, 새 시대를 달리는 우리 음악
경기도립국악단 타악, 사물팀
함경인·박상득 수석단원

50

타인의 취향
《話양연화》가 함께하는 사이(間)
話양연화 마니아 관객 유지내 씨

INTERVIEW

클래식을
사랑한
웹툰작가

경기필 청소년음악회 김용희 작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이야긴 더 재밌는다~’

김용희 작가가 현재 연재 중인 웹툰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의

마지막은 매화 이 문장으로 끝이 난다.

한껏 즐거움이 부풀어 올랐을 때,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한 컷.

그런데 김용희 작가도 어쩐지 그 한 컷과 닮았다.

평소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고, 웹툰과 클래식의 참신한 콜라보레이션에 도전하며,

여전히 가슴엔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실험적 도전, 의미 있는 기회

지난해 경기필 청소년음악회는 ‘모차르트 vs.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예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참신한 공연을 기획했다. 올해도 경기필 청소년음악회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들리는 웹툰 보이는 클래식’이라는 타이틀로, 웹툰과 클래식, 그리고 청소년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낮섬’과 ‘신선함’이 주는 이 오묘한 조합은 벌써부터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아진다. 그것도 열기와 낭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한여름 밤에 말이다.

이 음악회에서 웹툰과 드로잉 쇼를 선보이는 김용희 작가도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안긴다. 2000년 <해바라기 꽃미남>으로 데뷔해 2010년 <대작>, 2012년 <한여름밤의 꿈>, 2014년 <포코 알레그레토> 등 정교하면서도 흡인력 있는 작품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다음 웹툰에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 시즌3를 연재 중인 스토리텔러다.

“만화는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웹툰은 우리나라가 가장 활성화된 시장인 만큼 이러한 시도 자체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거는 만큼 부담도 되지만, 경기필 하모닉과 한 무대를 꾸린다는 자체가 제게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의 말처럼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웹툰’과 청소년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이 만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무대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 실험적인 도전이자, 작가 스스로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이다. 1부에서 멘델스존의 극음악인 <한여름밤의 꿈>에 맞춰 자신의 동명 웹툰 <한여름밤의 꿈>의 하이라이트 컷을 선보이며, 2부에서는 드보르작의 <신세계교향곡>에 맞춰 드로잉 쇼를 펼칠 예정이다.

“교향곡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곡은 아니기 때문에 ‘드로잉으로 이를 어떻게 흥미롭게 보여줄 것인가’와, ‘주된 드로잉의 테마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 중에 있어요. 그러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가 불현듯 떠올랐죠. <신세계교향곡>도 활기찬 문명과 대자연에 대한 경외로 만든 곡이기 때문에 ‘문명’을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그에 따른 결가지를 재미있게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경기필의 음악과 어우러져 새로운 차원의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될 거예요.”

클래식 가까이의 삶

알고 보면 김용희 작가의 삶에서 클래식은 늘 가까이에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음악시간이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카세트에서 공교롭게도 드보르작의 <신세계교향곡>이 흘러나왔죠. 그때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의 세례를 받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마주하게 된 클래식의 감동은 청소년기에 베토벤 전집을 사서 듣는 즐거움으로 이어졌으며, 마흔을 훌쩍 넘긴 지금은 라디오 주파수가 클래식 채널에 자연스레 맞춰져 있을만큼 일상 속에서 클래식과 함께하고 있다. 또, 요제프 카일베르트나 클리우디오 아바도 등 지휘자 전집을 수집하는



한편, 지난 2014년에는 시립교향악단을 배경으로 한 웹툰 <포코 알레그레토>를 선보이기도 했다.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브람스 교향곡 ‘제3번 3악장’을 카라얀이나 아바도 등 다양한 지휘자 버전으로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휘자마다 감동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클래식 공연장을 찾게 됐고, 점차 가족들과도 함께 즐겼습니다. 그 덕분인지 제 아들이 작곡과로 진로를 정하더군요. 이제는 아들을 위해 자주 공연장으로 향해요.” 그렇다면 김용희 작가가 생각하는 ‘웹툰’과 ‘클래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클래식은 200년, 300년 이상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디고 살아남은 고마운 음악이자, 지금도 사랑받는 음악이에요. 그렇다고 단순히 시간의 숙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 올라있는 예술작품이죠. 반면 웹툰은 현대인들과 가장 통하는 예술 장르고요. 열정적인 연주든, 개성 있는 스토리든 각기 표현 형식은 달라도, 두 영역 모두 ‘비언어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감동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닮은 점은 있어요.”

결국 다양한 감정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닮은 웹툰과 클래식의 힘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클래스’를 향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웹툰작가와 연주자에게 주어지는 공통 과제일 것이다.

“두 영역 모두 ‘비언어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감동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닮은 점은 있어요.”

연습만이 웹툰작가로 가는 지름길

김용희 작가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대작>에서는 최고의 막걸리를 두고 펼쳐지는 신명 나는 술 대결을,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숲, 소년 그리고 한여름의 꿈이 시작되는 순간의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에서는 동서양의 설화를 기반으로 한 모험 등을 그려내고 있다. 진행해 온 작품만 열추 보아도 판타지, 모험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었으며, 소재 또한 막걸리, 도깨비, 교향악단 등 다채롭다.

향후 도전하고 싶은 장르나 소재가 있는지 묻자 그는 ‘전통주’, ‘클래식’, ‘사극’만큼은 해보고 싶으면서도, 하고 싶지 않은 소재라며 웃어 보였다. 세세한 고증과 취재가 필요하다 보니 쉽사리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 그러면 서로 지난 작업에서의 아쉬움이 남았던지라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도 내비쳤다.

“현재 연재 중인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를 올해 중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긴 해요. 또, 체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중편 정도의 활극도 해보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일상적인 소재의 작품도 탐납니다.”

마지막으로 웹툰작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그리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말일 수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지름길이더군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INTERVIEW

단 하나의 수식어로 표현할 수 없는

피아니스트 박종훈

그는 작품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의 모습은 단 한 가지로 규명 지을 수 없다.

박종훈이라는 이름은 하나인데,
연주자, 작곡자, 음반 제작자, 공연 기획자, 해설자, 음악 감독 등
그 앞에 붙여진 수식어는 이토록 다양하기 때문.

쉽 없이, 그러면서도 폭넓게 자신만의 활동반경을 넓혀온 그.
어느덧 <PEACE & PIANO FESTIVAL>과도 네 번째 만남이다.

PEACE & PIANO FESTIVAL

<PEACE & PIANO FESTIVAL>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피아노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내재돼 있는 본 페스티벌에서 피아니스트 박종훈은 축제 첫째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무대로 관객의 심장을 두드려왔다.

매회 함께해 주신 <PEACE & PIANO FESTIVAL>에 대한 소회가 궁금합니다.

<PEACE & PIANO FESTIVAL>은 국내 피아니스트들의 경쟁력을 해외에 알리고자 피아노 하나만으로 최정상의 무대를 만드는 국내 유일의 단일 악기 페스티벌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규모 있는 페스티벌에 꾸준히 참여해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들과 무대를 꾸미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도 굉장한 영광이죠.

올해 참여하는 '콜라보레이션 스테이지'를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와 치하루 아이자와가 각각 우리나라와 일본 대표로 무대에 올라 쇼팽곡을 선보입니다. 그동안 콜라보레이션이 다른 장르와의 만남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올해는 명확하게 쇼팽으로 주제를 정했죠. 아무래도 피아노 음악하면 쇼팽이니까. 타이틀은 'A Different Chopin(색다른 쇼팽)'으로, 쇼팽곡이 주로 피아노 솔로 음악이다 보니 피아

니스트가 같이 연주할 수 있도록 이를 편곡하고, 폴란드 출신 첼리스트 야로스와프 동잘, 프랑스 피아니스트 앙트만 부뷔와도 협연할 예정입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 쇼팽은 영원한 로망이군요. 그렇다면 청중들이 어떤 마음으로 본 페스티벌을 즐겼으면 하나요?

같은 아시아인이라도 나라마다 연주자들의 성향은 조금씩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연주자는 열정적인 느낌이 강하다면, 일본은 단정한 인상이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두 솔리스트가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페스티벌을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간 <PEACE & PIANO FESTIVAL>과 함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이 있다면요?

제2회 <PEACE & PIANO FESTIVAL>이요. 국악, 타악, 현대무용 등이 접목된 새로운 형식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그랜드피아노 4대와 착한 피아노 8대가 한꺼번에 무대에 올랐고, 동시에 비주얼 아트도 선보였어요. 그 결과 청중에게는 이색적인 무대를 선사할 수 있

었지만, 연주자와 스태프는 안전한 상태에서 커져이 쌓아 올린 피아노에 올라가 무사히 무대를 마쳐야 하다 보니 모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예술이라고 칭하는 다양한 분야를 한 무대에서 보여주고자 한 과감한 시도였는데, 그때 무대만 떠올리면 아찔해서 기억에 남아요.

향후 이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나요?

<PEACE & PIANO FESTIVAL>은 경기도에서 열리지만 서울 분들도 관심 갖고 찾아오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욕심내 본다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 더 먼 나라에서도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축제가 됐음 좋겠어요. 연주자들도 페스티벌에 적극 참여하고, 청중 역시 연주자가 내는 개성 있는 소리에 관심 가지면서 모두가 즐기는 교류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애초에 음악은 경쟁이 아니니까요.

PIANO DUO 'VIVID'

한편 피아니스트 박종훈과 치하루 아이자와는 10년도 훨씬 넘는 세월 동안 피아노 한 대 앞에 나란히 앉아 꾸준히 화음을 빚어내고 있는 부부 피아니스트다. '생생하고 컬러풀한 연주를 하자'는 의미에서 듀오 비비드(Duo Vivid)를 결성하고, 2004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뒤 로마, 밀라노 등에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협연 무대에서 듀오 비비드의 매력을 뽐내고 있으며, 얼마 전 새 앨범 <Vivaldi / Duo VIVID : The Four Seasons>를 발매하기도 했다.

꽤 긴 시간 듀오 비비드로도 활동 중인데, 서로 어떤 음악적 동료인가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동료예요. 그런데 또 부부이니 그 누구와의 호흡보다 더 좋을 수밖에요. 상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더 많이 알고, 표정만으로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둘만의 묵직한 교감이 있죠. 물론 예술적 견해가 달라

충돌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부부이기에 가능한 무언의 조율로 봉합해 나가는 편이에요. 재미있는 점은 음악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예술가로서 의견을 나누다가도 그 끝은 결국 아내와 남편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죠(웃음).

이번 '콜라보레이션 스테이지'에서 두분의 호흡을 기대해도 될까요?

듀오 비비드는 항상 피아노 한 대에 두 명이 나란히 앉아 포핸즈(4 hands)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두 대의 피아노를 동시에 연주하는 더블 피아노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저희로서도 매우 새롭고, 각각의 피아니스트로서 개성을 더욱 뽐낼 수 있을 거라 기대도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은 청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구성이나 분위기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누가 연주하느냐'와 '무엇을 연주하느냐'에서 어느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있는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인물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편이에요. 프로그램이 좋고, 내용이 좋음에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좀 더 관심을 두죠. 그 부분이 발전하는 데에도 제약이 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유럽은 프로그램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쪽이에요. 연주자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그럼에도 한국 청중들은 어마어마한 열정을 갖고 있고, 관객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클래식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뛰어난 몰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연주자들도 뜨거운 객석 반응에 매우 놀

라죠. 그에 비해 유럽은 청중이 좀 노년화돼 있고, 아무래도 이런 에너지 분출은 드물어요. 서로 다른 점은 있지만 모두 순수하고 따뜻한 청중들이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CHONG HOON PARK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초로 리스트의 초절기고 연습곡 전곡을 완주했던 박종훈은 뉴에이지, 재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피아니스트로서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또, "연주자와 작곡가는 떼어 놓을 수 없다"고 할 만큼 작곡가로서의 행보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몇 해 전에는 드라마 <밀회>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클래식 음악 해설자로서 청중과 만나기도 했으며, 클래식과 재즈 전문 레이블 '루비스콜카'를 설립해 음반 및 공연 제작자로도 활약 중이다. 다양한 통로로 대중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청중과의 음악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박종훈이 걸어온 길이었다.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예술적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연주자로서는 '어떻게 곡을 해석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면, 작곡가로서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창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특히 피아니스트로서는 연주하는 곡에 자신의 철학과 해석,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모두 담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쇼팽은 멜로디도 아름답고 화성학으로도 직선적이라면, 브람스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복선이 깔려 있고, 변형이 되거나 동시에 나타나는 등 복잡하죠. 그럴 때 곡 해석적으로는 이 모든 요소를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무대 예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임팩트 있게 꾸며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연주에 앞서 작곡가와 나름의 협상 과정을 거치죠. 이번 곡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청중 입장에서는 그러한 타협이 곧 연주자의 곡 해석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해석과 이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피아노라는

악기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풍부한 음역을 구현할 수 있죠. 또, 어떤 악기와도 잘 어울리고, 불현듯 멜로디가 떠오를 때 작곡하기도 좋고요. 무엇보다 다른 악기들처럼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점이요(웃음).

마지막으로 어떤 예술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해요. 아무리 유명하고 위세를 떨친 연주자라도 대부분 사후에는 점점 잊혀지죠. 슬프지만 예술가의 운명이 그런 것 같아요. 연주를 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는 게. 그래서 저는 제 작품으로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도 좋겠지만, 어떤 작품의 저. 그게 예술인으로서 유일하게 바라는 점이에요.



경기 새천년, 새 시대를 달리는 우리 음악

경기도립국악단 타악, 사물팀 함경인·박상득 수석단원



예술은 때로 반항보다 후원자의 취향이나 학문의 규칙, 전통에 복종했다.
또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눈높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일깨워주기도 했다.
경기도립국악단은 이처럼 전통의 계승과 발전, 대중화와 다양성을 위한 실험 사이를 오가며
우리 음악을 파고들고 있다. 올 여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울림을 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 경기도립국악단의 타악, 사물 팀을 만났다.



박상득(사물) 수석단원

전통과 현대 사이

뒤통수를 ‘쿵~’하고 맞았다. 경기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 함경인(타악), 박상득(사물) 수석단원을 만난 자리에서다. 국악의 새로운 시도, 실험적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국악단은 ‘경기새천년 국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13일과 19일, 청소년음악회를 연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만큼 영상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접목한다. 이에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묻는 순간이었다.

함경인 수석의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현대인가. 국악도 지금 이 시대에 연주되는 현대 음악이지 않은가”하는 일갈이 머리를 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무대가 갖춰진 것은 1970년대 후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국악’이란 명칭이 확립된 것도 1950년의 일이다). 국악단도 작년에야 창립 스무 해를 맞았다. 클래식은 고풍스럽고 고상하게 즐기는 음악이라고 여기면서 국악은 다소 식상하고 고루한, 옛 전통의 하나라는 선입견이 질문에서 풍겨졌던 탓일지도 모른다.

박상득 수석 역시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국악은 ‘전통’이라는 인식 아래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져, 늘 새로운 무언가가 덧씌워져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강박이 작용한다는 아쉬움이다. 이는 그의 실제 경험과도 대치되는 일이다. 퓨전 창작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학생 대상의 체험 공연 때 전통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다가갈수록 반응이 좋았다는 것. 세계3대 축제 중 하나인 ‘애딘버러 밀리터리 타투’의 메인 무대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연을 펼쳤을 때도, 그 어떤 공연보다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가장 전통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가치관을 확립하게 됐다고. 덕분에 당시에도 갖고 있던 창작, 퓨전 등에 대한 고민과 방향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었다. “새로운 시도는 좋다”면서도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라는 단서를 다는 이유다.



함 수석은 “옛날에도 시대에 따라, 관객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연주자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기획력과 기획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과 기획, 이야깃거리를 갖고 긴 호흡으로 만들어내면 더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치세지음’으로 또 다른 혁신

치세지음(治世知音)은 국악단이 2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최상화 예술단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기존의 정간보를 서양식 오선악보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연습을 위한 교본을 제작했다. 악기별 역량강화, 조성변화 및 다양한 음악의 연주를 꾀하며 악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혁신이다. 교본의 분량만 해도 천 페이지가 넘고 새로운 변화를 익혀야 하기에 연주자들로선 ‘죽을 맛’이지 않을까. 현대 이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함 수석은 “의도 자체가 너무 좋다”며 “단원들도 힘들어지만 한 번쯤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지지했다. 한계점을 벗어나야 더 좋은 곡, 더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어 “치세지음에 있어 기악 파트에 주어진 과제가 많은데, 타악이나 사물이 무언가를 넘어선다는 건 아직 숙제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박 수석도 이에 동의하며 “연주자로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악기의 특성상 극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주자의 기량 향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뛰어넘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연주자로서 ‘더 깊은 맛’을 보고 싶은 박 수석으로선 연주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일이 반가울 법하다.

“일단 한 번 들어보시라”

새로운 기획과 실험적 음악, 치세지음. 결국 이 모두는 ‘국악의 대중화’라는 큰 고민을 풀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1996년 국악단 창립 공연에 매료돼 결국 지난 15년간의 청춘을 국악단과 함께해온 함 수석, 고향인 청학동에서 국악을 시작해 대학 때부터 목표로 해왔던 국악단에 입단, 8년째 몸담고 있는 박 수석. 이들과 함께 관현악단과 사물놀이, 민요 등이 한데 어우러져 음악적 역량이 넓은 데다, 지난 20년간 탄탄하게 국악의 길을 만들어 온 국악단이 만들어낼 이 시대의 음악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할 기회가 적다. 그래서 더 국악이 어렵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게 아닐까”라며 우려를 전했다.



함경인(타악) 수석단원

함 수석도 스크린쿼터제를 예로 들며 학교 교육 현장이나 문화생활에서 우리 음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대중에게 친숙해지면 시장은 넓어지고, 연주자도 다양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을 거란 얘기다.

1차적인 접촉을 강조하는 건 음악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일단 한 번 들어보시라”다. 함 수석은 “직접 보면 다 재밌어한다. 아직 못 본 분들이 많을 뿐”이라며 “국악은 즐겁게, 때로는 조용하게 감상할 수 있고 또 비 오는 날 막걸리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들을 수도, 우울할 때 들을 수도 있는, 인간의 감성을 다 건드릴 수 있는 음악”이라고 매력을 어필했다.

박 수석은 “공연이 끝나고 나면 누구나 웃을 수 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며 “연주에 담긴 ‘희로애락’의 슬픔조차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연희와 광대’를 통해 시대를 해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사물놀이를 설명했다.

외국의 한 재즈바에서 숟가락도 못 들 것 같은 노인이 재즈 드럼을 치고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함 수석. 그리고 ‘음악하는 광대’로서 연희뿐만 아니라 성숙한 음악도 보여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박 수석. 이들과 함께 관현악단과 사물놀이, 민요 등이 한데 어우러져 음악적 역량이 넓은 데다, 지난 20년간 탄탄하게 국악의 길을 만들어 온 국악단이 만들어낼 이 시대의 음악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아, 일단 한 번 보시라니까요!”

INTERVIEW

〈話양연화〉가 함께하는 사이(間)

話양연화 마니아 관객 유시내 씨

이동진 작가의 유려한 말씀씨와 번뜩이는 재치를 만나는 시간.

매회 글손님, 음악손님과 함께 추천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을 만나는 공간.

무대와 객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 순간.

유시내 씨가 BOOK & TALK 콘서트 <話양연화>를 아끼는 이유들이다.

<話양연화>는 내 운명

인터뷰를 위해 유시내 씨의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평소 책을 좋아했다”는 그의 말을 실감했다. 거실 한 벽면이 마치 작은 도서관을 연상시키듯 책으로 빼곡했던 것.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그녀가 바쁜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며 되찾은 일상의 여유로부터 소소한 독서모임을 구상하게 된 것도 꽤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책 한 권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다 ‘판교맘’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저와 뜻 맞는 분들을 모으게 됐고, 함께하는 회원분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 <話양연화>라는 좋은 공연이 열리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콘서트장을 찾게 됐어요.” 그렇게 <話양연화>의 특별함을 알게 된 그녀는 시즌 1, 2 모두 빼놓지 않고 함께한 마니아다.

<話양연화>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책 읽는 공연장’으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계절마다 ‘봄의 거짓말’, ‘여름의 실수’, ‘가을의 오해’와 같은 토크 주제가 있고, 영화평론가로 유명한 이동진 작가가 사회자로 나서 문화계 인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꾸린다. 특히 ‘미리 읽고 오면 좋을 책’을 안내해 관객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공연에 깊이를 더하고 있어 2016년 시작한 이래로 매회 관객점유율 95%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유시내 씨 역시 매회 공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추천책을 미리 읽은 후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다고. 또, 공연장을 함께 찾은 독서모임 회원들이나 딸아이와는 토크 주제나 소개된 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들만의 ‘북 콘서트’를 이어간다. ‘책’과 ‘이야기’가 가지는 힘이 그녀를 단단히 매료시킨 모양이다.

애정이란 이름의 칭찬과 조언

“김연수, 성석제, 김애란 등 훌륭한 작가를 비롯해 허진호 감독, 토마스극, 오지은, 정준일 등 뮤지션까지. 이런 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연이라니 환호했죠.”

<話양연화>의 섭외력에 엄지를 치켜 들던 그녀가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지난해 가을 진행된 <가을 콘서트-서른 즈음>이다. “소리꾼 이자람과 김애란 작가가 글 손님 과 음악 손님으로 참여했어요. ‘서른 즈음’이라는 토크 주제와 관련해 밀도감 있는 이야기가 오간 데다가, 세 사람이 한 무대에서 빚어내는 조합이 참 좋았어요.” 책과 이야기, 음악, 관객과의 호흡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빚어내는 그 조합을 “책을 좋아하는 분도, 그렇지 않은 분이더라도 느껴보길 바란다”고 추천을 전하기도 했다.

애정이 남다른 만큼 좀 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북 콘서트인 만큼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추천해 주는 책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다뤄진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또, 작품이나 음악을 이해할 때 작가나 뮤지션의 인간적인 모습 등의 배경지식도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에도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좀 더 풍성한 공연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덧붙였다. ‘오가는 이야기는 풍성하지만 산만하지 않게. 공연장의 분위기는 경쾌하지만 공연은 알차게’ 마니아다운 그녀의 조언을 새겨들을 만하다. “그래도 경기도문화의전당에게 감사해요. 판교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 있다는 건 삶의 즐거움 이죠. 언제 방문하든 포근한 느낌도 들고. 바라는 게 있다면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쉽게 다가가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생겼으면 해요. 또, <話양연화>처럼 기획력 좋은 공연도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수원에서 이런 콘서트를 만날 수 있다는 건 경기도민으로서 행복이니까요.”

STORY

A B O U T
C U L T U R E

R Y

54

예술, 수작을 걸다 I

아이와 공연 볼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예술, 수작을 걸다 II

신진 예술가의 꿈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공공극장의 역할

62

예술과 인문학

한여름 낭만 잔치는 시작되었다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아이와 공연 볼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글 신혜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고객센터시스템장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아이에게는 신나는 방학이지만 엄마는 아이와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 것인지 고민이다.
학원가에는 온갖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넘쳐나지만, 옥석을 가리기 쉽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럴 때 가까운 공연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공연이라는 생생한 예술교육 콘텐츠에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은 덤이다.

하지만 정보에도 스팸이 넘치듯, 공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공연감상에는 관람시간뿐 아니라 객석에 앉기 전과 공연이 끝나고 나서의,

관람 전후의 모든 활동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렇다면 아이와 가장 즐겁고 유익하게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술교육은 크게 ‘예술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rts)’과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으로 나뉜다.

과거의 예술교육은 단순히 예능 실기를 배우는 ‘예술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의 예술교육은 예술을 매개로 하여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을 통한 교육’을 추구한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창의력과 상상력, 배려와 공감능력, 삶을 즐기는 자세, 다양성에 대한 소통과 교감 등을 배우는 데 가치를 둔다. 또한 단일장르 보다는 다른 예술장르와의 교류, 예술과 인문학, 예술과 과학 등 학문과 장르를 넘나드는 ‘통합예술교육’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통합예술의 가장 보편적인 교육 활동이 바로 공연관람이다. 공연이란 음악·미술·문학·춤·과학·기술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으로 완성 후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영화나 책, 미술작품 등과 달리 공연은 단 일회로 그친다. 작품의 제작과 동시에 소멸하는, 공연이 플레이되는 그 순간에 관객들은 ‘관람’이라는 예술 활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 점에서 공연은 다른 예술과 차별되는 부가가치를 가진다. 어린 시절부터 공연장을 자주 찾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예술을 즐기는 생활을 영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자세라면, 예술 활동에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가성비 높은 교육투자인 것이다. 그리하여 너무나 보편적이지만, 잊기 쉬운 공연관람 상식을 짚어 보았다.

공연 선택은 신중하게

방학 시즌에 어린이공연은 넘쳐나지만 유기농과 인스턴트의 거리만큼이나 공연의 질도 천차만별이다. 좋은 작품은 어떤 걸까? 오랜 시간 관객에게 사랑받아온 공연을 제외하고는 판단이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우선 원작이 검증된 콘텐츠인지, 믿을만한 공연단체인지, 수상경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어린이 전용극단이나 공공예술단, 어린이연극제나 페스티벌 작품 등은 믿을만하다. 방송이나 인터넷의 인기 캐릭터에 편승하여 만든 시즌 작품은 급히 만들어 완성도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

살아있는 음악과 편안한 무대도 중요하다. 현란한 조명이나 귀를 때리는 인공적 음향, 조악한 무대장치는 어린아이의 정서를 자극하게 된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은 무대 위 세상을 현실과 혼동하며, 이때 받은 부정적 자극은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무대가 어둡거나 무서운 스토리라고 해서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아니며, 미적으로 완성된 무대와 현장에서 연주하는 좋은 음악은 직관적인 아이들에게 엄마품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굳이 권선징악이나 교훈적인 스토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아이에게 교훈을 주려 하지 말고 작품의 희로애락과 아름다움을 그냥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자. 이왕이면 관객연령을 세분화한 작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영유아와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와 청소년은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장연령은 전문적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막이 오르기 전부터 감상활동은 시작된다

집에서 외출을 준비하면서부터 감상활동은 시작된다. 아이가 공연에 대해 상상하며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기대가 배가될 것이다. 클래식이나 오페라라면 정장느낌이 좋다. 스커트와 구두, 재킷 등 격식 있는 옷차림을 하면 아이의 행동도 덩달아 우아해 진다. 뮤지컬이나 연극이라면 그에 맞는 주인공 코스프레를 해봐도 재밌겠다. 지나치게 편안한 슬리퍼나 운동복 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최소 공연 시작 30분 전에는 공연장에 도착하도록 한다. 데스크에서 티켓을 수령한 후, 공연장을 둘러보고 리플릿을 보며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을 권한다. 로비에서는 간단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화장실에 다녀오게 한 후 게이트가 열리면 장내로 입장하도록 한다. 앉은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해 로비 물품보관소에서 어린이 방석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팁이다.

객석에서는 멋진 관객의 역할을 수행하자

좋은 관객이 좋은 공연을 만드는 법이다. 객석에서는 식음료를 섭취하거나 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를 꺼야 하고, 티켓에 명시된 지정좌석에 앉는다. 아이들에게는 앞에 더 좋은 좌석이 비어있어도 이동할 수 없으며, 공연 중에는 함께 온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도 참아야 함을 알려준다. 다른 관객이나 무대 위 배우들의 몰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객석 에티켓을 지키는 일은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아이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무대 위 예술가들과 교감한다

무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출연진과 함께 울고 웃는 아이를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흐뭇한 시간도 없을 것이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과 공감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이가 공연과 교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간혹 커튼콜 때 자리를 뜨는 관객들이 있는데 아직 공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커튼콜의 박수는 배우뿐 아니라 작품을 제작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이다. 하우스 어셔가 게이트를 열고 로비의 빛이 새어 들어올 때가 비로소 관객들이 퇴장할 시간이다.

막이 내리면 공연의 여운을 나눈다

객석을 퇴장하면 아이와 작품에 대한 소감을 나누되, 서로 다른 시각을 인정해준다. 작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좋다. 가끔 티켓비용이 부담스럽거나 공연을 즐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들만 입장시키는 부모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들은 부모와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시간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공연을 보고 아이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의견을 나누는 과정도 소중한 것이다. 무엇보다 12세 이하 어린이들만의 입장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부재는 무절제한 관람태도로 이어져 다른 관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는 예술교육의 목적은 예술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한두 번의 예술경험으로 갑자기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이 모여 다음 예술 활동을 이끌어내고, 결국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상식과 배려를 지킨 공연감상활동은 아이에게 의미 있는 예술체험이 되며, 그러한 체험의 순간들이 모여 보다 가치로운 예술 활동을 만들어내고, 결국 아이의 삶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예술 활동을 계획해 보자.


 STORY

신진 예술가의 꿈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공공극장의 역할

글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흔히 ‘프라하의 봄’으로 불리는 체코 프라하 봄 국제 음악제는 유럽 클래식계에서 손꼽히는 축제 가운데 하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이후 체코가 정치적 격동을 거치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져왔다. 축제 창설 이듬해인 1947년부터는 30세 이하 젊은 연주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음악 콩쿠르도 개최된다. 매년 두 개의 다른 악기로 번갈아가며 열리는 콩쿠르의 역대 수상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비트 오이스트라흐,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피아니스트 스비아토슬라프 리

히테르, 플루티스트 제임스 골웨이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는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1~2위를 석권해 화제를 모았다. 2015년 플루티스트 김유빈이 우승하는 등 그동안 한국 연주자들이 종종 수상했지만, 지난해엔 1위 박진형과 2위 김준호 모두 순수 국내파라는 점에서 좀 더 주목을 끌었다. 여기에 두 피아니스트의 공통점도 있다. 바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2015년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인 정재훈 사장 취임 이후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클래식

유망주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 ‘경기 영아티스트’ 연주자라는 것이다.

‘경기 영아티스트’는 매년 오디션을 통해 선발 연주자에게 1년간 독주회를 비롯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와의 협연 등 다수의 무대 경험뿐 아니라 홍보, 멘토링 등 본격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존 키무라 파커, 첼리스트 지안왕, 바이올리니스트 초량린,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만-첼리스트 아만다 포사이스 부부 등 세계적인 아티스

트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신인 연주자들이 거장을 직접 사할 기회를 준다.

사실 신인 연주자들이 콩쿠르 등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려면 독주회와 오케스트라 협연 등 다양한 스타일의 무대에 서 봐야 한다. 하지만 소수를 제외하곤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경험의 폭이 넓지 않다. 그래서 경기 영아티스트는 신인 연주자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Incubating



2016년 경기 영아티스트 하규태

실제로 2015 영아티스트였던 박진형과 김준호 외에 이유진 이 같은 해 일본 무네츠크 국제콩쿠르 3위, 2016 영아티스트인 하규태가 윤이상 국제콩쿠르 2위, 2016 영아티스트인 정지원이 같은 해 러시아 그랜드피아노국제콩쿠르 데니스 마추에프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외에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해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를 초청해 '경기 리카르도 무티 오페라 아카데미'를 열었다. 아카데미는 지휘자, 성악가, 오페라 코치(피아노 반주) 등 세 분야에서 유망주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교육을 펼쳤다.

무티는 재능 있는 음악도를 키우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무티가 한국에서 진행한 아카데미는 고국 이탈리아 이외에 국외에서 열린 첫 번째 아카데미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전속단체인 경기도립국악단과 경기필도 그동안 신진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경기도립국악단은 우수한 국악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2년 '명인을 꿈꾸다'를 시작했다. 기악과 성악, 타악 분야의 젊은 연주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치러 국악단과 협연할 기회를 주는 데서 시작해 분야를 작곡, 지휘로 점점 넓혀왔다. 16회째인 올해는 보다 젊고 역동적인 차세대 주역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Master Wanna be'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인다.

경기필은 솔리스트 양성에 편중돼 온 국내 음악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휘와 작곡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지휘·작곡 마스터클래스'를 실시해 왔다. 기악과 성악 분야에서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잇따라 우

승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휘와 작곡은 예외다.

지휘자의 경우 국내에선 포디움에 설 기회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어렵다. 지휘 마스터클래스에 선발된 신진 지휘자들은 성시연 등 경기필 예술단장의 음악적 노하우를 전수받는 한편 오케스트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작곡가 마스터클래스는 국내외에서 작곡을 전공한 신예 작곡가들에게 창작곡을 직접 실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재정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청중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한 우수 창작곡 발굴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국내 공공극장 가운데 신진 예술가 육성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편이다. 신진 예술가들이 아말로 문화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는 점에서 예술 기관이라면 소홀해선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에서 신진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은 1990년대 들어 잇따라 만들어졌다. 다만 당시 공공 분야에서 공연예술 지원 정책은 대부분 직접적인 자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진 데다 창작이나 실연의 주체인 예술가보다는 사업 자체가 중심이 됐다. 기본적으로 신진 예술가를 '보호'하는 소극적인 지원이지 '발굴' '육성'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지역 문화재단이 잇따라 생기고 공공극장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한국에서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공공기관에서의 지원사업, 공공극장 및 기업재단 운영 극장에서의 기획 프로그램, 축제 형태의 지원사업 등으로 나뉠 수 있다. 클래식과 관련해 축제 분야에서는 통영국제음악제와 평창대관

령음악제가 대표적이지만 신진 예술가 지원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에서 제외한다.

공공 지원기관 부문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표적이고, 지역 단위 문화재단에서도 신진 예술가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지원 규모나 프로그램 형태는 다르지만 공모를 통해 다액소건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처럼 창작을 위해 연구과정 지원, 멘토 등 조력자의 도움, 협업 창작기회 등 신진 예술가들이 목말라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극장과 기업재단 운영 극장도 연간 기획 프로그램 형태로 신진 예술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실 공공극장보다 기업재단이 운영하는 민간 극장이 신진 예술가 지원에 먼저 나섰다.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금호아시아나재단이 운영하는 금호아트홀은 영재 발굴 및 육성으로 명성이 높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금호영재콘서트 시리즈(만 14세 미만)와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시리즈(만 14세 이상)다. 지금까지 두 시리즈를 통해 배출된 음악 영재들은 1,000여 명에 달한다. 손열음, 김선욱, 조성진, 선우예권, 임지영, 문태국, 김봄소리 등 현재 30대 이하 한국 클래식 연주자 가운데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롯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롯데콘서트홀은 최근 젊은 연주자들을 위한 유스 오케스트라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창단에 나섰다.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청소년 연주단체 정도에 머무르는 기존 유스 오케스트라와 달리 젊은 음악도들이 기성 오케스트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직업모델로서 유스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태다.



아만다 포사이스(왼)와 존 키무라 파커(오른)의 마스터클래스

하지만 기업 운영 극장의 신진 예술가 지원은 언제든 중단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LIG손해보험이 운영하던 LIG아트홀은 현대무용, 재즈, 다원예술, 인디음악 분야에서 수년간 신진 아티스트를 지원했다. 특화된 주제에 따른 워크숍 프로그램, 워크숍을 통해 개발된 작품을 선보이는 쇼케이스 그리고 국제교류까지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모기업이 KB금융지주에 인수되면서 극장은 바로 문을 닫았다.

한편 공공극장은 아니지만 서울시향이 2005년 재단법인 설립 이후 기악, 작곡, 지휘 등 여러 분야에서 마스터클래스를 꾸준히 개최하며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했다.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지휘 마스터클래스, 진은숙 상임작곡가의 작곡 마스터클래스, 트럼펫 수석 알렉상드르 바티의 브라스 아카데미, 전 악장 스베틀린 루세브의 바이올린 마스터클래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진은숙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영국 로열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의 젊은 작곡가 육성 프로그램에 뽑힌 신동훈 등 여러 작곡가들이 발굴된 것은 큰 성과다. 서울시향은 최근 정명훈 전 감독이 사퇴하면서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전문 음악인 양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신진 예술가 지원 및 육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속성'이다. 점차적으로 공공극장이나 예술단체마다 그 중요성에 눈을 뜨고는 있지만 한두 번 지원하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되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극장이나 단체 대표의 의지나 취향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 제대로 된 전략과 틀 안에서 지속성을 갖고 질을 높여가야만 '브랜드'가 될 수 있다.

한여름 낭만 잔치는 시작되었다

글 유윤중 동아일보 문화기획팀 부장, 음악전문기자

“축제 가자.”

“어? 좋아!”

친구가 데려간 곳은 클래식 음악축제였다.

모처럼 아름다운 선율에 잠길 수 있어 행복한 밤이었다. 그렇지만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아시장도 없고, 몸을 던지면서 깔깔거리는 ‘액티비티’도, 볼꽃놀이도 없다.

조금 전 갈채를 보낸 청중들은 나와 친구처럼,

조용히 연주자가 던져준 감흥을 되새기면서 주차장을 향해 걷고 있다.

“어땠어?” 친구가 묻는다.

“응 좋았는데, 축제가 맞아?” 내 대답에 친구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그럼, 축제지. 나, 내일도 모레도 또 올 거거든.”



쓰리 콰이어스 페스티벌(3 Choirs Festival)

음악축제는, 특히 클래식 음악 축제는 통상의 축제와는 다르다. 모여서 소리 지르는 흥분은, 연주가 끝나고 난 뒤 커튼콜로 족하다는 느낌이다. 또 음악회장이라는 정숙한 공간, 소리 없이 모여들어 로비에서 속삭이는 ‘축제 참여자’들까지. 일반적인 콘서트와는 확실히 ‘무엇’인가 다르다.

클래식 분야에서의 음악축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20세기의 산물이다. 물론 영국의 이름난 합창축제인 ‘쓰리 콰이어스 페스티벌(3 choirs festival)’이 1719년부터 열리고 있고, 음악극(오페라) 축제의 원조 격인 독일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축제’는 1876년 바그너 자신이 문을 열어젖혔으니,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계 음악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음악축제들은 대부분 20세기의 것이고, 또 많은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0년대에서 50년대 시작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공연장의 ‘시즌제’ 및 교통과 여행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 20세기 들어 영국인들의 ‘그랜드 투어’ 문화가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여유 있는 시민층에게 ‘여름’이란 자신의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먼 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계절로 인식되었다. 음악가들도 주요 오페라 극장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을 포함하여 여름에는 먼 곳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공연장의 시즌제도 이즈음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 한 공연장의 공연물 제작에서 티켓 판매까지 계획하는 1년 단위의 시간표를 초가을에 시작해서 초여름에 마무리되는 형태로 짜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먼 곳으로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휴가지에서 음악을 듣고 싶은 것이다. 휴가를 떠난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에는 일정한 수입과 갈채를 받고 싶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휴가지에 집중된 시간에, 공연장의 1년과 비교할 수 있는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압축이 주는 열기가 있고, 휴가 시즌의 한가로움과 들뜸이 있고,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저녁에 공통의 관심사와 분위기를 즐기는 교류가 있었다.

그렇다. 그것이 음악축제다. 볼꽃놀이는 없고, 액티비티도, 장터도, 소란도 없지만 이 조용한 사람들의 축제는 유럽과 미주를 넘어 전 세계 여름 음악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때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으니, 각자의 극장과 단체, 자신의 도시에 매여 있던 예술가들이 국경을 넘어 조우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대표 단원들이 놀라운 합주를 만들어내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바로 그런 여름밤 마법 같은 산물이다.

때로는 남다른 공간이 ‘축제’의 매력을 더하기도 한다. 별빛과 바람이 함께하는 공간, ‘야외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의 공간인 이탈리아 북부의 베로나에선 로마 원형경기장을 배경으로 여름마다 야외 오페라 축제가 펼쳐진다. 혹 비라도 내리면 새벽 1~2시에 공연이 시작되기도 한다. 수천 년 전 인간들의 야망이 축조한 거대한 공간에서, 고대 이집트를 무대로 한 베르디의 ‘아이다’나 구약성서의 바빌론이 무대인 ‘나부코’를 감상하고 있으면, 나 자신이 고대의 일부가 된 듯한 환상에 젖어 든다.

오스트리아의 야외 오페라 축제인 '브레겐츠 축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3개국에 접한 보덴호수 위에 오페라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흥행에 성공했다. 호수 동쪽인 오스트리아 쪽에 객석을 설치하고, 호수 서쪽에 2년 동안 쓸 수 있는 고정 무대를 '건설'한다. 이는 그저 며칠 밤 쓰고 헤어버리는 무대가 아니다. 여기서 투란도트면 투란도트, 토스카면 토스카를 내내 공연한다. 서머타임 속의 아홉시가 넘어가고 서쪽 호숫가가 붉게 물들면 독일 쪽에서 관객을 실은 배가 점점 다가온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벌써 심장이 쿵쾅거리는 축제다.

야외라는 공간만이 각별한 감흥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아니다.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의 한촌 바이로이트에서 펼쳐지는 '바그너 축제'는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이방인을 압도한다. 검은 정장, 흰 셔츠의 행렬은 '여기 속하지 않는 자, 알아서 자리를 피하라'라고 말하는 듯하다. 긴 인터미션에는 공연장 2층의 나무창이 열리고 금관합주가 몽근한 여름 대기 속으로 퍼져나간다. 샴페인을 한 잔씩 든 검은 양복 신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퍼져나간다. 술이 약한 동양의 방문자에게 그 샴페인은 이어지는 시간의 적절한 수면제가 될 것이고, 아무리 바그너 오페라의 마니아라도 딱딱한 나무 의자, 공기 순환장치가 없는 미지근한 공기는 무대 밑에서 '백 로디스 훈' 스피커처럼 강렬히 뿜어져 나오는 금관의 소리까지 잊고 고개를 떨구게 한다. 그러나 그것도 축제가 남긴 기억의 일부인 것이다.

그밖에 '말보로', '탱글우드'와 같은 북미의 음악축제는 젊은 음악인 육성 프로그램을 겸하고 있으며, 잔디밭에 자리를 깔고 편한 자세에서 듣는 야외 주공연장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실황을 담은 음반에서는 음표 사이 침표마다 도드라지는 풀벌레의 또르륵 소리까지 느낄 수 있다. 간혹 모기에게 피를 맡겨볼 수도 있지만, 잊지 못할 경험임에는 틀림없다.



바그너 축제(Bayreuther Festspiele)



바그너 축제(Bayreuther Festspiele)

음악축제는 한편으로 예기치 못한 만남이 이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 방문한 '독일 라인가우 음악축제'는 라인 강변의 고성과 옛 교회들로 이어지는 '음악회장스럽지 않은' 현장들의 축제였다. 이런 성의 로비에서는 미국 작곡가 스티브 라이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샌드위치를 사러 옆에 선 사람이 다름 아닌 고음악 지휘자 라인하르트 괴벨이었다라는 등의 추억담 정도는 흔해진다. 필자의 경험도 그랬다. 이제는 우리 음악가와 음악팬들도 여름밤과 선율이 한데 어울리는 해외의 음악축제 현장들을 누비고 있다. 이 생생한 현

장들을 전하는 영화관과 케이블 채널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외의 유명 축제 못지않은 우리의 여름 잔치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여름을 사랑하는 음악팬이라면, 습기를 날려버릴 또랑또랑한 피아노의 터치에 눈동자가 커질 여러분이라면, 가슴을 두근거리게 될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네 번째 준비한 Peace & Piano Festival'이 올해 열리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에서 모여든 열 손가락의 장인들이 특별한 감흥의 순간을 제공할 것이다.



<예술과 만남>이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번호 <예술과 만남>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건의하고 싶은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독자 엽서 또는 이메일(magazine@ggac.or.kr)을 통해 전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4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하늘 높이 차오르지 못하고 지리산 상공을 휘돌던 상처입은 용. 태
몽 속에 나타났던 그 용의 모습이 윤이상 선생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어 몽클했습니다. 선생님의 생애와 작품관을 풀어서 자세히
적어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생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사회
의 벽과 분리가, 화합과 평화를 작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한 원동
력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술과 시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건희**(수원시 장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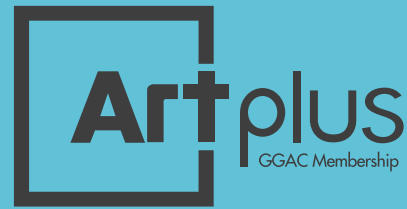
‘난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난버벌 퍼포먼스. 대화가 없이도 감
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연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고 보게 됐습니다.
‘태권무’는 들어봤지만 ‘태권무무’는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태권
도가 보이는 화려한 기술을 무용수들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
한 의문이 글을 계속 읽어 내려가게 했습니다. 벌써 10주년 무대라
고 하니 태권도와 무용의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 노력한 제작진들과
무용단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발전에 큰 기대
를 걸어 봅니다. **김현아**(안양시 동안구)



영웅은 제가 봤던 뮤지컬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안중근 역을 맡은 이지훈 씨의 인터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 속 영웅을 연기하면서 미소년 이미지를 바
꾸기 위한 노력했다는 내용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또, 젊은 청년 안
중근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힘썼다는 말에 공연의 기억이 새록새
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배우 버전을 보면서
비교해보고 싶네요. **박정우**(의왕시)



경기필 공연을 볼 때마다 협연하는 연주자나 주요 악기들에 시선
이 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주목
을 덜 받는 타악기 연주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연주의 기준이 되는
박자를 잡아주는 타악기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예술과
만남에서 타악기 연주자들을 소개해주니 그들과 한층 가까워진 느
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립예술단 소속 연주자들을 집중
조명해주세요! **이하영**(수원시 영통구)



삶에 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회원 혜택

공연·전시 티켓 구매 시 할인 일부대관 공연·전시 제외	예매 수수료 면제 전화 및 전당 홈페이지 티켓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면제 전당 기획·예술단 공연 *온라인회원 제외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공연 초대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강좌 수강료 할인 교육프로그램 '예술가 꿈' 수강료 5% 할인 *온라인회원 제외
식음료 제휴 서비스 카페 셀란(CELLAN) 음료쿠폰 증정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예술과 만남> 우편 발송 *온라인회원 제외	공연 프로그램 복 증정 기획공연·예술단공연 1회 1권 *온라인회원 제외	주차요금 면제 공연·전시 관람 및 행사 참석 시 무료주차 *온라인회원 제외	문자(SMS, LMS),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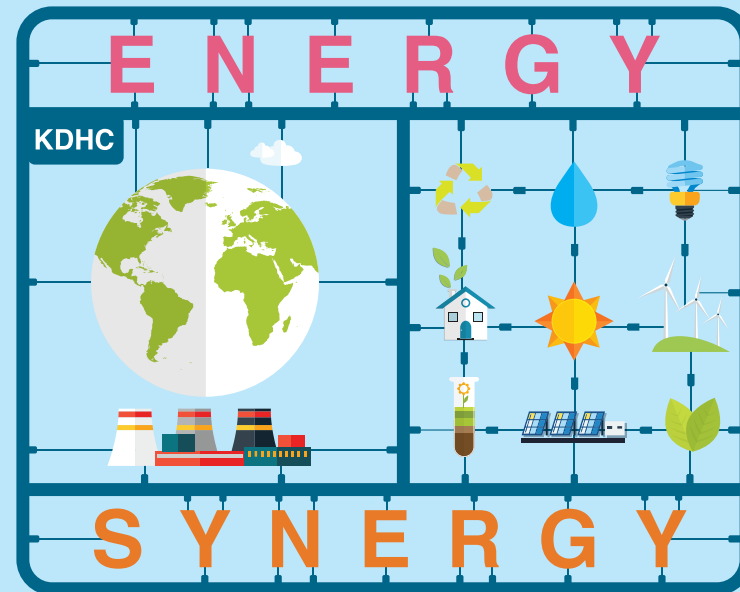
가입 안내

- 연회비 : 골드회원 5만원 / 일반회원 3만원 / 온라인회원 1만원
- 방문 가입 : 경기도문화의전당 미소도움관 내 인포샵 또는 고객센터시뮬 방문
웹 회원 가입 : 전당 홈페이지 웹 회원 가입/로그인 후 고객센터 > 아트플러스 유료회원 안내 > 회원가입
- 가입 후 10일 이내 회원카드 등기 발송(온라인회원 제외)

문의

- 전화 031-230-3242
- 팩스 031-230-3275
- 이메일 artplus@ggac.or.kr

SYNERGY
<에너지가
나만의 시너지>



에너지가 될까요? 시너지가 될까요?

누군가 에너지 그 자체만을 행할 때
우리는 지구를 보듬는 에너지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에너지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에 주목합니다
누군가 미래의 에너지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들 더 큰 시너지를 계획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지 시너지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www.kdhc.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사업
정부 3.0
[에너지 · 문화 · 교육 · 복지]

NEWS

2017 AUGUST + SEPTEMBER | VOL. 127

윤봉구 예술단장, 경기도립극단
신임 단장으로 취임하다



01

경기도립극단 예술단장으로 윤봉구 연출가(61세·이하 윤 단장)가 취임했다. 윤 단장은 극단 '물뿔'을 창단한 연극 배우 출신 연출가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한국예총 부회장 등 굵직굵직한 경력을 쌓아왔다. "경기도립극단의 정체성 확립으로 경기연극계를 선도하고 경기도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윤 단장은 연극예술혼이 살아숨쉬는 경기도립극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통을 활성화 시키며, 더 많은 도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힘쓰고, 연극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4대 전략을 밝혔다. 윤 단장은 앞으로 2년간 경기도립극단을 이끌 예정이다. 경기도립극단의 행보가 기대된다.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연극 <윤이상 ; 상처입은 용>



02

윤이상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립극단이 7월 7일부터 9일까지 <윤이상; 상처입은 용>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평창동계올림픽 총감독 양정웅 연출이 총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여기에 이대웅 연출과 이오진 작가까지 가세해 연극계 최고 핫한 3인방이 함께한 작품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예술가이자 음악가로서 윤이상의 삶을 조명했다는 호평을 받은 이번 공연은 특히 '등불'로 표현한 윤이상의 다양한 삶의 순간들과 '첼로'로 표현되는 음악을 통해 윤이상을 진솔하게 담아 관객들에게 '예술가 윤이상'을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성황리에 마쳐



03

임동혁이 지난 6월 25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피아노 리사이틀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독일 현지에서 직접 타건해 고른 그랜드 피아노 스타인웨이로 아름다운 음색을 선보였다. '쇼팽 스페셜리스트'답게 1부에서는 쇼팽 녹턴 Op.27-2, 화려한 변주곡, 발라드 1번, 뱃노래를, 2부에서는 쇼팽 24개 전주곡 Op.28을 연주하며 피아노 연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관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 임동혁은 사인회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주 후 팬 사인회 때 공연장 로비 밖까지 긴 줄이 이어지는 등 임동혁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관객들이 공연장 로비 바깥까지 줄을 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역량있는
2017 경기영아티스트 선정



04

2017 경기영아티스트가 선정되었다. '경기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은 역량 있는 연주자들을 발굴하여 역량 강화와 무대 경험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2017 경기영아티스트로는 김영지(바이올린), 김지영(피아노), 김강태(피아노)가 선정됐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8월~12월 중 10회에 걸쳐 경기필하모닉과의 협연 및 독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경험한다. 한편, 국악 명인을 꿈꾸는 거문고, 소금, 대금, 해금, 가야금, 민요 분야의 젊은 연주자 9인 역시 <Master Wanna be> 공연에서 국악단과 협연하게 된다.

08+09

GYEONGGI ARTS CENTER

독일에 올려퍼질
경기필의 윤이상



05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독일 무지페스트 베를린(Musikfest Berlin)에 참여한다. 무지페스트 베를린 측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윤이상 기념 공연을 마련했다. 경기필은 윤이상의 탄생일인 9월 17일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윤이상의 교향악 <예악>, <무악>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무지페스트 베를린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실내악 앙상블 등이 참여하는 손꼽히는 음악 축제다. 올해는 8월 31일부터 9월 18일까지 베를린 필하모닉 홀, 콘체르트 하우스 등에서 19일간 진행된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새내기 사원 맞이해



06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경기도 산하기관 상반기 통합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맞이했다. 132: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주인공은 한소라 주임과 이아선 주임. 한소라 주임은 국악사업팀에, 이아선 사원은 홍보미디어팀에 발령을 받았다. 한소라 주임은 "앞으로 기획하게 될 공연들이 어렵거나 재미없지 않고 관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국악당 공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아선 주임은 "선배들이 가족처럼 잘 대해주셔서 낯선 수원과 회사가 집처럼 느껴진다"며 "부족하지만 배워나가는 신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 산하기관 통합 공채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8 August

대극장 소극장 빛나는갤러리 소담한갤러리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꿈꾸는컨벤션센터 썸썸큰무대 신나는 야외극장 외부공연 야외광장 초청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이강욱개인展 <COLOUR AND WHITE>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2  이강욱개인展 <COLOUR AND WHITE>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3  이강욱개인展 <COLOUR AND WHITE>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4  이강욱개인展 <COLOUR AND WHITE>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5  이강욱개인展 <COLOUR AND WHITE>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6  이강욱개인展 <COLOUR AND WHITE>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7	8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9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10  경기필 청소년음악회 들리는 웹툰 보이는 클래식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11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12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DMZ 평화콘서트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13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DMZ 평화콘서트  경기도립국악단 청소년 음악회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14	15  소광썬 2017 Summer Kids Festival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16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17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18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19  경기도립무용단 판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20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21	22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23  경기도국악당 흑부리장구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24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25  제4회 PEACE & PIANO FESTIVAL 오프닝 리사이틀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26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경기필하모닉 2017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27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28  제4회 PEACE & PIANO FESTIVAL 콜라보레이션 스테이지	29  제4회 PEACE & PIANO FESTIVAL 장 주오 리사이틀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30  경기도국악당 흑부리장구  문화가 있는 날 한여름 밤의 Fantasy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31  제4회 PEACE & PIANO FESTIVAL 아시안 하모니  전시 얼렁뚱땅 색깔공장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경기필 청소년음악회 <들리는 웹툰 보이는 클래식>, 경기도립교향단 <청소년 음악회>,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경기필 청소년음악회 <들리는 웹툰 그리는 클래식>, 경기도립교향단 <청소년 음악회>, 전통연희국 <후보리장구>,
제4회 PEACE & PIANO FESTIVAL <오프닝 리사이틀> & <콜라보레이션 스테이지> & <장 주오 리사이틀> & <아시안 하모니>,
전시 <얼렁뚱땅 색갈공장>, 경기도립무용단 기획공연<판>

9 September

대극장 소극장 빛나는갤러리 소담한갤러리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꿈꾸는컨벤션센터 썸썸무대 신나는야외극장 외부공연 야외광장 초청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 제4회 PEACE & PIANO FESTIVAL 듀오 하모니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군포 문화예술회관, 구리아트홀]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3	4	5	6	7	8	9
🔥 제4회 PEACE & PIANO FESTIVAL 피날레 콘서트 🎨 [김포아트홀]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 🔥 경기도립국악단 곰돌이의 여행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경기도국악당 흑부리장구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경기도립국악단 곰돌이의 여행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경기도립국악단 곰돌이의 여행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 🎨 [예술의 전당] 경기필하모닉 현대 음악가 시리즈 (윤이상) 🔥 경기도립국악단 곰돌이의 여행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10	11	12	13	14	15	16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경기도국악당 흑부리장구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브런치콘서트 with 김중진 가을 그리고 김중서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폴란드카토비체콘서트홀] 경기필하모닉 폴란드카토비체 공연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17	18	19	20	21	22	23
🔥 [베를린콘체르트 하우스 대극장] 경기필하모닉 베를린뮤직페스티벌 🎨 전시 열령뚱뚱 색갈공장			🎨 경기도국악당 흑부리장구	🔥 🎨 DMZ 2.0 예술과 대화	🔥 🎨 DMZ 2.0 예술과 대화	🔥 경기도립무용단 판 🔥 🎨 DMZ 2.0 예술과 대화 🎨 경기도립국악단 Master Wanna be 콘서트
24	25	26	27	28	29	30
			🔥 문화가 있는 날 가을의 스윙랜드 for her 🎨 경기도국악당 흑부리장구	🔥 話양연화 시즌2 가을의 오해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경기도립국악단 <곰돌이의 여행>, 경기도립국악단 <Master Wanna be 콘서트>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제4회 PEACE & PIANO FESTIVAL <듀오 하모니> & <피날레 콘서트>, 경기필하모닉 <현대 음악가 시리주윤이상>, 브란치콘서트 with 김종진 <가을 그리고 김중서>, 경기도립무용단 기획공연 <판>, 誦양연화 시즌2 <가을의 오해>, 경기도립국악단 <곰돌이의 여행>, 경기도립국악단 <Master Wanna be 콘서트>, 전시 <얼렁뚱땅 색갈공장>, 전통연희극 <혹부리장구>



www.ggac.or.kr



twitter.com/iloveggac



www.facebook.com/loveggac



blog.naver.com/ggarts



9 772234 594006

ISSN 2234-5949